

# 잠녀·잠녀문화 가치 제고 시급

[기획/세계문화유산시대를 연다] 3) 지역 차원 추진력 제고

등록 : 2013년 01월 23일 (수) 09:17:13 | 승인 : 2013년 01월 23일 (수) 09:20:13  
최종수정 : 2013년 01월 23일 (수) 09:18:50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제주 잠녀와 잠녀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WCC 의제 채택에 따른 후속작업과 지역역량 결집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작업을 끝내고 물 밖으로 나오고 있는 해녀들.

## WCC 제주형의제 채택 등 국제적 관심 유도 후속작업 개별 진행되며 추진력 저하 우려

지난해 9월 열린 WCC세계자연보전포럼 중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총회에서 '제주 잠녀'는 제주형 의제 중 하나로 세계의 이목을 받았다. IUCN 총회 채택은 사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제주 잠녀·잠녀문화 가치 제고 작업에 있어 국제적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객관적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문제는 후속작업'이다.

### # '확실한 목표' 집중 필요

당시 통과된 '제주 해녀의 지속가능성'발의안에는 제주 등 한반도에 분포한 잠녀의 실태를 조사하고 독특한 잠녀 문화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등 회원국들이 잠녀 공동체 보존에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안에는 특히 제주잠녀·잠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지지와 참여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잠녀·잠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앞으로는 확실한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제주잠녀·잠녀문화 세계화 작업은 꾸준히 진행돼 왔다. 하지만 '해녀문화센터 건립'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해녀 축제 규모화' 등 외형적인 부분에 치우치며 지역적 공감대를 구하는 데는 한계를 보여 왔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에 제주잠녀·잠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등재 신청서를 만들었다. 제주잠녀·잠녀문화가 단순히 제주의 전통과 정신을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이 아니라 국제 브랜드 제고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제적으로 그 사례가 없는 여성 중심의 해양문화와 함께 상생을 앞세운 '독특한 해양 생태 지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물론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문제는 그 이상으로 이끌어갈 추진력이다. 여기에는 중앙 정부 교섭력 등 자치단체 차원의 역할도 부각됐다.

## # 공동체 보존 위한 정책 개발

WCC 제주형 의제 발의 과정에 제주도는 국제적 차원의 잠녀 공동체 보존 방안과 잠녀 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정책개발과 실행 승인을 요구했다.

또 제주도와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는 잠녀의 실태조사, 독특한 잠녀 문화의 학술적 가치 정립,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동체와 공동체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잠녀와 관련된 조사나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세계화 작업을 통해 잠녀·잠녀문화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졌다.

별도의 장비 없이 수심 10m 이상까지 잠수하고 세대를 거치며 환경에 적응해온 물질 도구, 해신당이 나 영등굿 등으로 집약되는 주술적 신념, 집단 경제의 실천과 지역사회 재투자 등 유·무형 유산이 복합된 형태의 잠녀문화는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부터 가치 재정립까지 살펴야 할 것이 많다. 분명한 방향을 잡기 위해선 잠녀 의제에 대한 WCC 후속 작업이 시급하다.

이런 사정과 달리 제주도의 WCC 후속 작업은 해당 의제별로 각각의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 구성됐던 WCC 관련 부서는 이들 계획안을 수합하는 단순 서무 기능 이상을 소화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당장 2014년은 아니더라도 잠녀·잠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역량 집결을 서둘러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지를 받았던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등재는 꼬박 4년여,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의 세계유산 등재는 무려 12년이 걸렸다.